

성경언어와 과학

Biblical Language and Science

신득일

| 신학과교수, 신학박사 |

시작하면서	128
1. 현상적 표현	129
2. 일상용어	131
3. 계시의 도구	135
4. 상징적 용어	136
1) 태양	136
2) 별	137
3) 구름	138
4) 날개	138
5) 이슬	139
6) 그늘	139
5. 신학적 표현	140
맺으면서	141

신득일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B A.,M.Div) 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공부했다(Th.M.수료).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Drs)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법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Ph.D).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The Ark in Redemptive History*라는 책을 출판할 준비를 했다. 현재 저서로는 「히브리어 문법」과 역서로, 「욥기강해」, 「성경지리입문」 등이 있다.

요약문 :

본고의 목적은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할 때 나타나는 성경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언어란 항상 문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기록된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던 문화의 제약을 받는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관련된 언어의 성격을 따라 성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언어는 과학이 학문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용어가 아니다. 그 언어는 현상적, 일상용어이며 상징적, 신학적 의미를 지닌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표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몇몇 성경언어의 성격을 대략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당한 성경해석과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제시했다. 성경 언어의 성격과 본문의 의도를 무시한 채 성경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성경도 과학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주요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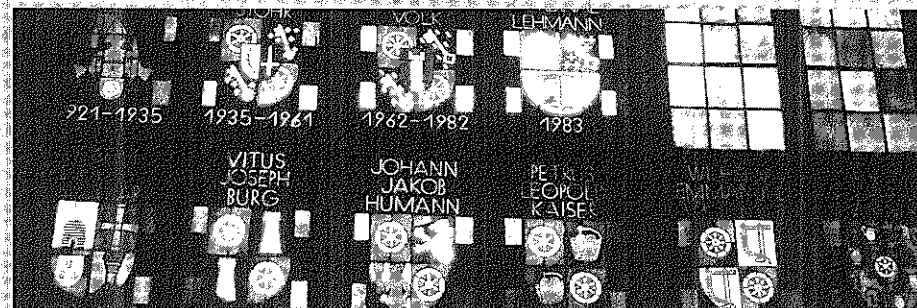
성경언어, 과학, 창조과학, 현상언어, 근본주의

Biblical Language and Sci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dicate some problems about Biblical language that can be raised when we attempt to prove that the Bible is true even in the scientific field. Language is always interwoven with culture. That is why the written language is confined by the specific culture where the language is used. Even Biblical truth should be explain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the language used in that culture because it wears the clothes of language and culture. Biblical language does not use technical terms we can scientifically deal with because it is pre-scientific language. The fact that Biblical language is phenomenological, 'symbolical' and theological makes it hard scientifically to examine Biblical expressions about natural phenomena. This article suggests a proper Biblical interpretation and a limit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 by examining some classified characters of biblical language concerned with natural phenomena. After all, it will be a desirable attitude toward the Bible and the results of scientific studies to attempt scientifically to prove the Bible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Biblical language and the intention of Biblical texts.

keywords:

Biblical language, science, creationism, phenomenological word, fundamentalism



B i b l i c a l and Science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주의 생성과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과학적으로도 옳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참인 것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렇지만 성경은 과학적 체계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고 인류구속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기록되었다. 성경에서 자연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자연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집착하도록 한다. 즉 기적을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경의 일차적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적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경언어의 성격이다.

성경의 언어는 과학이 학문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용어가 아니다.¹⁾ 그래서 그런 언어로써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표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몇몇 성경언어의 성격을 대략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당한 성경해석과 과학적 설명의 한계 점을 논하고자 한다.

1. 현상적 표현

성경의 언어는 사람들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체계적인 학문을 연마하지 않은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될 것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zārah haššemeš ūbā hašāmeš*)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현상적 일상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오히려 과학적 표현을 한답시고 '지구가 돈다'라고 말한다면 현대인에게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가 뜨다'란 표현은 '해가 오르다(*zārah*)' 또는 '해가 나오다(*yātsā*)'로 되어있다. 이것 역시 현상적 표현이다. 성경에 소개된 태양과 관련된 몇 가지 표현은 마치 태양이 돌고 지구가 정지해있는 것처럼 들린다(수 10:12, 13; 삿 5:31; 욥 9:6f; 시 93:1, 104:19; 전 1:4, 5등). 이것은 과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반과학적인 표현도 아니다. 다만 일상용어로서 대중적인 현상적 표현일 뿐이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별'(*kōkāb*)이라는 말도 그냥 현상적 표현이다. 오히려 '(불)타다'라는 어원 *kbb*은 과학적 의미와 좀 더 가까운 것 같다.²⁾ 지구과학에서 별이란 스스로 에너지를 가진 발광체를 뜻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을 반사하는 흑성과 구분하지 않고 썼다. 풀과 채소, 과목, 그리고 물고기, 새,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에 대한 언급은 식물학 또는 생물학적 분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이다. 다섯째 날에 창조

* 본 논문은 지난 5월 기독교 학문연구회 과학영역에서 발표한 글이다.

1)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London: The Paternoster Press, 1955, 65ff.

2) W. Baumgartner (ed.), *Hebrisches und aram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V*, Brill, 1967-, 1204.

된 '큰 물고기' (*hattaninnim hag^c dolim*)는 어류에 속한 물고기를 뜻하는 *dag* 가 아니다.³⁾ 이것은 '큰 해양생물' 을 뜻하는데 *tannin* 이란 말은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뱀(출 7:9; 신 32:33; 시 91:13), 악어(겔 29:3), 힘센 동물(렘 51:34) 등. 이 용어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파충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용어 자체는 그냥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것이다.

궁창은 현대인에게는 그냥 '공간', '대기' 로 통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궁창(*raqia*) 은 금속판을 두들겨 편 것으로 둥근 천장같은 것을 의미한다(Vulgate 판에는 라틴어로 '떠받든다' 는 의미를 가진 *firmamentum* 으로 번역됨).⁴⁾ 이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자기 머리 위에 둥근 지붕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현상을 따라 성경에 명명되었다. 궁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증거 해 주었다(시 150:1; 시 89:6, 37; 사 1:2; 렘 31:37, 33:25 참조).

레위기에서 토끼가 되새김질한다고 했다(레 11:6). 늘 우물거리는 토끼의 입모양 때문인데 현대 학자들의 발견은 토끼가 잠잘 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개미의 부지런함에 관한 교훈이다(잠 6:6). 최근 개미 연구가는 단지 25%의 개미가 일할 뿐 나머지는 빈둥거린다고 한다. 그러나 개미의 근면은 현상적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잠언 30:25은 개미가 힘이 없다고 하는 것도 현상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인은 개미가 체구에 비해서 얼마나 힘이 센 피조물인지 잘 알고 있다.

3) 요나서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 는 한글번역으로는 꼭 같은데 이것은 물고기이다(dag).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류인지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인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4) W. Baumgartner, op.cit., 441.

말라기 선지자는 태양의 광선은 "태양의 날개" (그것의 날개로, *bikⁿ nāfeha*) 로 묘사했다(말 4:2). 이것은 태양이 비칠 때 주위에 나타나는 광선이 마치 날개와 같이 보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주 그려내는 *sola disc*와 비교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고 하신 것도 현상에 근거한 것이지 과학적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밀의 껍질과 전분은 썩어도 배아의 생명은 유지되어 발아하기에 엄밀히 말해 밀알이 죽는다('apothnēskō)고 할 수 없다. 이같이 성경의 언어는 현상적이다.

2. 일상용어

일상용어란 과학적 사실과 상관없이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개념을 따라서 표현하는 말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날' (*yōm*) 이란 말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현대인에게는 하루란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을 뜻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록된 성경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실 옛세 창조기간의 길이가 얼마나를 두고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다. 우선 일치론적 해석(the concordist interpretation)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루를 고생물학에서 말하는 시대로 보면서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추구했다.⁵⁾ 이 주장의 핵심은 창세기의 '날' 이 항상 지구

5)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H. Miller, J. Dana와 J.W. Dawson이다. 미국의 D. Young과 영국의 Derek Kidner도 이 이론을 따른다. Ramm, op.cit., 145, 146; Davis A. Young, *Creation and the Flood*,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88.

의 자전 주기인 24시간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무한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키드너는 시편 90:4(“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아니이다”)를 인용한다.⁶⁾ 성경에서 ‘날’이 항상 24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구절은 날이 하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이나를 표현하는 것이다.⁷⁾ 또 문자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하루를 모두 24시간으로 본다.⁸⁾ 그렇지만 24시간이란 길이는 지구의 자전에서 나온 것인데 천체운동의 법칙과 태양계의 궤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구의 자전과 그 시간의 길이를 태양계의 법칙과 같다고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아예 시간적 의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문학적 해석이다.⁹⁾ 창조기사는 연대기적인 묘사도 아니고 과학적

6) D. Kidner,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IVP, 1967, 55ff.

7) H. J. Kraus, *Psalmen II*,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0, 631.

8) 이들 중에 지난 세기의 독일의 구약주석가 C. F. Keil과 금세기 미국의 보수주의 구약학자 E. J. Young이 있다. 현재 미국의 J. C. Whitcomb과 Henry M. Morris가 이 해석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C. F. Keil & F. Delitzsch,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52; E. J. Young, *In the Beginning,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p. 43; John C. Whitcomb, *The Science of Historical Geology in the Light of the Biblical Doctrine of a Mature Creation*, *WTJ* 36 (1973), 68.

9) 그 주창자는 화란의 구약학자 A. Noordtzi로 보는데, 나중에 암스텔담 자유대학의 구약 교수였던 Nic. H. Ridderbos, 캘리포니아의 B. Ramm, 뉴 잉글랜드의 M. G. Kline, 영국의 D. F. Payne과 오스트레일리아의 J. A. Thompson이 그 귀를 따랐다. A. Noordtzi, *Gods woord en de eeuwen getuigenis*, Kampen: J. H. Kok, 1931, 117; Nic. H. Ridderbos, *Beschouwingen over Genesis I*, Kampen: J. H. Kok N. V., 1963, 60; Blocher, op.cit., 50; J. A. Thompson, *Creation*, in: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I*, Leicester: IVP, 1994, 333-335.

인 보고도 아닌, 다만 시와 같은 예술적이고 인위적인 정교한 문학적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글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지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한다. 창조기사의 자료 배열은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도식을 따랐다고 본다. 실제로 본문은 환경과 거주자라는 측면에서 첫 삼일의 창조와 나머지 삼일 간에 정확한 대칭을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구조적 관계가 있다(1-4, 2-5, 3-6). 매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 째 날이니라”로 마친다.¹⁰⁾ 그렇지만 성경은 엷새 창조를 역사의 시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무시간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어느 이론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날’에 대한 성경 자체의 입장을 견지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첫 3일간의 시간이 엄격하게 24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지도 않고 또 무한한 시간의 길이로 보려는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첫 3일도 이후의 날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셨다(출 20:11).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라는 말이다.

창세기 10장 25절에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다”(nifgā hā'āreṭs)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Antonio Snider(1858)가 주장한 지각구조론 (tectonic theory)이나 1930년대 독일 기상학자

10) Cf. Noordtzi, op.cit., 117ff. P. Beauchamp은 이 구조의 인위성과 정교함을 글자 수를 세어서 규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Paul Beauchamp, *Cratation et sparation: tude exgtique du chapitre premier de la Gense*, Paris: Desclé de Brouwer, 1969, 17-31. 네째 날의 창조 명령은 열개 중 다섯 번째이고, 처음 4일간의 전체 날말의 수는 207개인데 다섯째 여섯째 날의 수는 206개이다. 그래서 네째 날은 육일간 사역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 Alfred Wegener가 진화론을 적용시켜 주장한 대륙 이동설(continental drift)을¹¹⁾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사람들’에 대한 환유법으로 쓰인 것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백성’이란 말 대신 ‘땅’이라고 했다(땅이 사로잡히다, 사 18:30; 땅이 음행하다, 호 1:2). 그래서 땅이 나누어진 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배치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언어의 기법은 고대로부터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다.

이사야 11장 12절의 “땅의 네 모퉁이”(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KJV, NKJV, NRSV, NASB, ESV)란 표현은 현대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린다. ‘corners’로 번역된 히브리어 kanf?는 ‘언저리’나 ‘끝부분’을 뜻한다(cf. 사 34:16). 그래서 “from the four corners”라고 번역한 영역본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 사실 땅은 둥글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글개역은 ‘사방’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전체 문맥과 조화를 이룬다. 즉 이것은 땅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11절에서 언급한 나라를 통틀어서 온 세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동쪽은 엘람과 시날, 서쪽은 바다 섬들이고, 남쪽은 애굽, 북쪽은 하맛을 가리킨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땅의 모양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장 먼 지역을 의미하는 일상적 표현으로 ‘땅끝’이라는 말을 썼을 것으로 본다.

민수기 21 장에 ‘불뱀’ (*hann^e hāšīm haššerāfīm*, “burning snakes”)이란 표현은 현대인에게는 전혀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뱀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냥 독사를 뜻한다. 그렇지

11) A. Wegener, *The Origin of Continents and Oceans*, New York: Dover, 1966.

만 용어 자체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뱀이 어떤 종류인지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대인들은 독사에 물린 결과가 마치 불에 덴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이런 표현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문헌에서 자주 대할 수 있는 표현이다.¹²⁾

신약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막 4:31, *mikroteron on pantōn tōn spermatōn-tōn epi tēs gēs*,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었다.¹³⁾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예수님은 식물학의 기준을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알고있는 상식을 따라 말씀하셨다. 즉 그렇게 작은 씨가 큰 키로 자라듯이(3m 이상) 하나님 나라도 극히 미미해 보이지만 크게 확장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씨와 다 자란 식물간의 대조적인 크기이다.

3. 계시의 도구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에 맞추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의 몇몇 자연현상을 언급하는데도 적용된다.

12) William W. Hallo, *The Context of Scripture*, II, III, Leiden: Brill, 2002, 15, IIV.

13) Cf. James A. Brooks, *Mark*,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85.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나오는 '저녁' (*ereb*)이라는 말은 아카어로 '해가 진다' (*erbu*)는 어원에서 온 말이다.¹⁴⁾ 그때는 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해가 없는 상태의 저녁은 이후의 저녁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같이 취급한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개념에 맞추시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⁵⁾ 이것은 '날'이라는 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연현상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상징적 용어와 관련이 된다.

4. 상징적 용어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신적인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1) 태양

많은 경우 해는 물리적인 시간과 방향을 나타낸다(아침, 창 19:23; 삿 8:13; 저녁, 창 15:12, 17; 28:11 장소, 사 59:19, 켈 8:16, 등). 그

14) Von Sodo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233.

15) H. M. Ohmann, *Het Oude Testament en de natuurwetenschap* in: A. P. Wisse (ed.) *In het licht van Genesis* Christelijke wetenschappers over schepping en evolutie, Barneveld: Uitgeverij De Vuurbaak, 1986, 98.

러나 신학적 의미로 쓰일 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드보라는 아웨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힘있게 돌음같이 하옵소서" 라고 노래함으로써 해가 오르는 것을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삿 5:31). 시편 84:12(한글 11절)에서는 '야웨 하나님은 해' 라고 했다. 시편기자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해를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표현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말 4:2). 악인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의인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메시아의 의를 태양에다 비유했던 것이다.

2) 별

성경에는 하늘의 별을 많은 수효에다 비교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창 15:5; 22:17; 26:4; 고전 15:40-41, 등). 그렇지만 별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발람의 예언에서 "한 별이 아곱에게서 나오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민 24:17). 이 별은 왕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께도 적용된다(계 22:16). 드보라는 "하늘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했다(삿 5:20).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욥기 38:7에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별들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도 한다.¹⁶⁾ 그러나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별들

16) Dennis Gordon Lindsay, *Harmony of Science and Scripture*, II, Dallas, Texas: Christ For The Nations, Inc, 1991. Lindsay는 Kepler가 천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음악소리를 낸다고 믿었다고 소개한다. 그는 흑성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악보로 계산해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노래했다는 말인데 그때는 별도 없었다. 이 표현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뒤의 병해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고 했는데, ‘별’과 ‘하나님의 아들’을 같은 것으로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구름

현대인들은 ‘구름’이라고 하면 대지에서 작은 물방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형성된 것과 큰 구름의 입자가 서로 엉키면 비가 되어 내리고 구름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 뇌우를 동반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경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시내산 현현, 출 24:16; 성막의 구름, 출 33:10; 40:34; 성전의 구름, 왕상 8:10-12, 등).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고 했고 재림 때도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했다(행 1:9; 계 1:7).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영광과 장엄함을 상징한다.

4) 날개

성경에서 날개는 보호와 힘을 상징한다(출 19:4; 룻 2:12; 사 40:31, 등). 특별히 이것은 독수리의 힘과 새끼를 보호하는 자상함을 가리킨다(신 32:11).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날짐승이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바람의 날개로 다니신다는 표현(시 104:3)이나 날개달린 그룹을 타고 날으신다는 표현이 그렇다(시 18:10). 고대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날개달린 혼합체(hybrid)인 그룹과 같은 형상을 사용했

다.¹⁷⁾

5) 이슬

이슬은 아간의 복사냉각으로 지표 근처에 물체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공기중의 수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응결하여 생기는 물방물이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밤에는 지중해 쪽의 서풍이 불어 습하여 이슬이 많이 내린다. 그리고 이 지역의 농사에 이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이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표현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이란 모든 생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복인 영생을 설명할 때도 이슬이 사용되었다(시 133:3). 이사야는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고 했다(사 26:19). 호세이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분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다(호 14:5). 이슬은 비와 함께 번영과 풍요에 대한 상징이다.

6) 그늘

자연현상으로서 그들은 시원한 느낌과 보호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면과 음침하고 추운 느낌을 갖게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상징적으로도 두 가지가 다 쓰인다. 성경은 종종 ‘사망의 그늘’이란 표현을 쓴다(시 23:4; 44:19; 사 9:2, 등).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긍정적으로 쓰인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피사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되신다는 것은(시

17) Cf. Elie Borowski, Cherubim: God's Throne?, BAR 21 (4), 1995, 36-41.

121:5) 작열하는 태양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5. 신학적 표현

성경에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표현을 신학적 의미로 쓰인 경우가 종종 있다. 특별히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 단순한 공간이나 천체를 가리키는 현상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만유의 주권자로서 그 위엄과 거룩을 나타낸다(시 2:4; 11:4; 마 6:9, 등).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시 93:1). 이 문장에서 ‘세계’라는 말은 *tebel*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땅’(*erets*)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땅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이 문장은 문맥상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의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묘사되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Lindsay는 모든 물질은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과학이 다루는 신비로운 모든 비물질적인 것, 즉 에너지, 전기, 자기, 파장, 중력 같은 것은 보이는 물질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원자도 전기현상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물질이 원자로 구성된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¹⁸⁾ 만

일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성경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은 것”이란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으로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창조에 대한 신학적 표현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원자로 세상을 지으셨다면 그것은 무에서(*ex nihilo*)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에서 창조했다는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자라고 한다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맺으면서

언어란 항상 문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기록된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던 문화의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관련된 언어의 성격을 따라 성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과학에 친숙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진리를 과학적으로도 진리가 된다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는 일종의 사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성경과 대치되는 그릇된 과학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과학자의 임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그 언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근본주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현대 과학적 연구결과를 비판한다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18) Lindsay, op.cit., chapt. 20.

서 성경에 근거한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기 전에 성경 언어의 일상적이고, 현상적, 상징적, 그리고 신학적 표현들을 잘 고려해서 본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 Alioto, Anthony M., *A History of Western Sci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 Baumgartner, W.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V*, Leiden: Brill, 1967-1990.
- Paul Beauchamp, *Cratation et sparation: tude exgtique du chapitre premier de la Gense*, Paris: Descle de Brouwer, 1969.
- Borowski, Elie, Cherubim: God' s Throne?, *BAR21* (4), 1995, 36-41.
- Brooks, James A., *Mark*,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Hallo, William W., *The Context of Scripture*, II, III, Leiden: Brill, 2002.
- Keil C. F. & F. Delitzsch,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Kidner, D.,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IVP, 1967.
- Kraus, H.J., *Psalmen II*,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0.
- Lindsay, Dennis Gordon, *Harmony of Science and Scripture*, II, Dallas, Texas: Christ For The Nations, Inc, 1991
- Morris, Henry M., *Biblical Cosmology and Modern Science*,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0.
- Noordtzij, A., *Gods woord en de eeuwen getuigenis*, Kampen: J.H. Kok, 1931
- Ohmann, H.M., Het Oude Testament en de natuurwetenschap in: A.P. Wisse (ed.) *In het licht van Genesis* Christelijke wetenschappers over schepping en evolutie, Barneveld: Uitgeverij De Vuurbaak, 1986.
- Ramm, Bernard,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London: The Paternoster Press, 1955.
- Ridderbos, Nic. H., *Beschouwingen over Genesis I*, Kampen: J.H.Kok N.V., 1963.
- Sodon, Von, *Akkadisches Handwrterbuch*,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 Thompson, J. A., Creation, in: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I*, Leicester: IVP, 1994, 333-335.
- Wegermer, A., *The Origin of Continents and Oceans*, New York: Dover, 1966
- Whitcomb, John C., The Science of Historical Geology in the Light of the Biblical Doctrine of a Mature Creation, *WTJ* 36 (1973).
- Young, Davis A., *Creation and the Flood*,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 Young, E. J., *In the Beginning*,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